

■ 교육

대학 편입 ... UC 지원 이달 말 마감



그래픽=shutterstock

미국 대학 편입은 한국과 비교해 매우 수월한 편이다. 편입생에 대한 문호를 넓게 개방하고 있는 것이다.

UC 계열 대학이나 일부 주립대학들은 연간 수천 명의 편입생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아이비리그 대학인 코넬 대학은 연간 700명 가까이 편입을 받는다. 남가주의 유명 사립대학인 USC는 2,200명 정도를 받는다. UIUC(일리노이 대학) 어베너-شم페인나 위스콘신 매디슨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많은 학생들을 편입으로 선발한다.

물론 아이비리그를 포함해 사립 명문 대학의 편입문은 역시 좁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매년 아이비리그 가운데 비교적 편입생을 많이 받아들이는 유펜이나 컬럼비아 대학으로 편입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많다.

편입은 4년제 대학에서 다른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다른 루트는 커뮤니티 칼리지(CC)에서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하는 경우다. CC에서 2년을 마치고 편입을 하거나 CC 1년을 다니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할 수 있다.

만일 캘리포니아주 CC에서 UC로 편입을 하려면 2년을 마치고 편입을 한다. 그러나 다른 주의 4년제 대학으로 가려면 CC 1년을 다니고도 가능하다. CC에서 UC로의 편입 신청 마감일은 이번 달 말이므로 UC로의 편입을 고려하는 학생 가운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4년제 대학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편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의 신입 지원과 같다고 보면 된다. 준비 서류나 절차가 거의 신입과 비슷하다. 다만 대학교 성적과 대학교수 추천서가 추가로 들어간다.

그러나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으로 편입을 할 경우 고등학교 성적이나 SAT, ACT 성적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컬럼비아 등 최상위권 대학으로 편입을 할 경우 3학년 편입이라고 하더라도 SAT, ACT 성적을 요구한다. 따라서 표준화 시험 성적이 없을 경우 최상위권 대학으로의 편입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3년으로 편입을 할 경우에는 전공을 정하고 편입을 하게 된다. 이때 1-2학년 때 들은 선 이수과목(Pre-requisit)이 맞는지 잘 파악을 해야 한다. 특히 공학이나 컴퓨터 사이언스의 경우 선 이수과목 조건이 맞지 않으면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포함해 다른 편입 지원 조건도 잘 맞춰야 한다.

학생이 혼자 점검하기 어렵다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카운슬러 등 입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편입을 결정할 때는 당연히 학비도 고려해야 한다. 편입에 성공하고도 학비 부담 때문에 중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사립대학 학비는 연간 6-7만 달러에 이른다. 보통 가정에서는 부담하기 쉽지 않은 액수이다. 그래서 반드시 학자금 보조/ 장학금을 신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학자금 보조는 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꼭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해야 한다.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Brea Dam Trail

Brea Dam Park에서 Fullerton Gold Course까지

Harbor Blvd.를 자주 지나면서도 이런 트레일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차도에서 불과 몇 발자국 들어왔을 뿐인데 완전 야생의 트레일이 펼쳐져 있으니 말이다.

Brea Dam Park 주차장에서 트레일을 시작한다. 브레아 댐 파크는 아주 작은 공원으로 댐을 만들고 그 바닥의 공터에 만든 공원이다. 만일 물이 가득 차서 수문을 열개되면 물속에 잠길 곳이다. 그러나 그럴 염려는 없다. 현재 걸로 보기에 물 한 방울 없으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이곳이 가득차서 수문을 열 일은 절대 없기 때문이다. 바닥에 내려가서 보면 가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기는 하나 그야말로 비상시에 대비해 만들어 놓은 댐이다.

차를 주차하고 왼쪽을 보면 파란 잔디가 펼쳐져 있다. 피크닉 테이블이 몇 개 보이고 바비큐 그릴도 보인다. 그리로 들어가 조금 걸다보면 오른쪽에 작은 길이 보인다. 비탈길 따라 오른다. 몇 걸음 오르지 않아 왼쪽에 커다란 댐이 펼쳐져 있다. 댐을 왼편에 두고 길을 걷다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온다. 왼쪽 길을 택한다. 조금 걸다보면 왼쪽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울창한 대나무 숲이 나온다. 잠시 물소리를 들으며 대나무 숲속을 걷는다. 잠시 후 물소리는 끊기고 커다란 두 개의 터널이 나온다. 어느 쪽을 택해도 좋다.

터널을 통과하면 바로 풀러턴 골프코스의 13번홀 티박스과 만난다. 골프장을 오른편에 두고 길 따라 걷는다. 13번홀 그린을 만나고 곧 14번 티박스가 보인다. 이렇게 가까이 골프장을 끼고 걷는 트레일도 흔치 않을 듯하다. 골프 치는 사람을 바로 코앞에 두고 걷다니. 좌우로 피마자(아주까리)가 무성하다. 약간 경사를 오르면 작은 댐이 하나 나타난다. 브레아 댐에 비해서는 작지만 꽤 높은 댐이다. 홍수가 나면 여기서 일단 막은 후 수위를 조절하면서 방류해서 브레아 댐으로 흐르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작은 댐을 오른쪽으로 두고 내려가면 풀러턴 골프코스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나온다. 아스팔트 길옆을 걸어서 비탈길을 올라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쟁쟁 달리는 길가를 걷기 싫다면 그대로 돌아서도 좋다. 그러나 잠시 숨 돌리고 갈 생각이 있다면 골프장 식당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한 잔하고 가자. 달걀과 베이컨을 넣은 샌드위치, 맛이 괜찮다. 가격도 \$5, 커피 \$2.50 훌륭한 점심이 된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던 길을 되돌아오면 된다. 걷는 동안 자전거 타고 달리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니까 조심해야 한다. 왕복 약 3.5마일

▶ Brea Dam Park: 1700 N. Harbor Blvd. Fullerton, CA 92835

▶ Fullerton Golf Course: 2700 N. Harbor Blvd, Fullerton, CA 92835



▲ Brea Dam, 사진=타운뉴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